



이태종
중앙일보 NIE(신문활용교육)팀장
taejong@joong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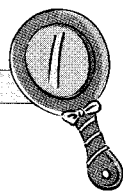
서울의 교통은 노인들이 혼자 다니기엔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 우선 시내버스의 경우 발을 딛는 턱이 너무 높다. 운전기사들은 배차시간에 쫓겨 노인들만 서 있으면 정거장을 그냥 지나치기도 한다. 동작이 굼뜨니 반가울 리 없다. 어쩔사리 차에 타더라도 의자에 앉은 사람이 양보하지 않을 땐 속절없이 교통을 감수해야 한다. 운전사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할라치면 의지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쓸리게 된다.

얼마전 한 일간지에 정차 위반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딱지를 떼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사정은 이랬다. 운전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순간, 지팡이에 의지한 할머니가 버스를 타기 위해 다가왔다. 운전기사는 못 본 체 할 수 없어 버스를 세우고 할머니를 태웠다.

때마침 단속 나온 구청 직원에게 딱 걸렸다. 정류장에 차를 바짝 대지 않고 승객을 태웠다며 정차 위반으로 20만원 짜리 딱지를 끊은 것이다. 거금의 벌금을 내게 생겼는데도 운전기사는 짜증을 내지 않았다.

보도가 나간 뒤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는 버스기사를 선처해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딱지 떼는 걸 떠나 친절상과 함께 선물까지 주시길” 등 다양한 내용이 꼬





리를 물었다. 사정이 이러하자 해당 구청은 “정상을 참작해 운전사에 대해 금번에 한해 계도조치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홈페이지엔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할머니께도 기사님께도 평등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이고 위반을 인정했으니 딱지는 꼭 떼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모금을 합시다. 그래서 법 위에 굴림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합시다. 대신 모금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글도 함께 보였다.

정황이야 어떻든 운전기사는 ‘현행법’이다. ‘아름다운 위법’을 한 운전기사의 정상을 참작이 될지라도 그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사정을 봐준다면 법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운전기사가 선행을 위해 위법을 해야만 했고, 그 위법이 다시 선행으로 합리화되는 풍토를 누가 만들었느냐는 것이다. 운전기사들이 노인 태우는 것을 기피하지 않았다면, 버스에서 배차시간을 지키라고 운전기사를 닥달하지 않았다면 그는 뒤따를 버스에 안심하고 할머니를 맡겼을 터다.

우리 사회는 과거 법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풍조가 만연해 준법정신이 낮은 경향이 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관행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번져 있다. 최소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깨진

셈이다. 이젠 한술 더 떠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이 국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특별 사면되고, 권력층에 다시 편입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란 말이 나오고 있다.

법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양심에 호소하는 질서 유지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인 것이다. 하지만 법은 사람들이 믿고 생활할 수 있어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명확해야 하고,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로 시행돼야 하고, 일반인의 의식에 부합해야 한다. 법은 또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기득권층’부터 자발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며,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지 않으면 약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공정한 소득 분배, 균등한 기회, 최저 생활 보장 등은 물건너 간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사회적 약자들은 법을 위반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누구나 나부터 먼저 법을 준수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남은 물론 나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제 대한민국헌법이 공포된 지 55돌을 맞는다. 경제적 논리나 권력 때문에 법을 위반하며 까지 선행을 해야 하는 그런 사회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PPPK**